

소상공인 “대환영”... 대형마트 “판결 존중”

중기업계 “상생 발전 취지 재확인... 골목상권 활성화 노력” 대형마트 “소비자 선택권 무시... 부작용 최소화 방법 강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 판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한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 소상공인업계와 대형마트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대법원 판결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며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의무휴업 조항 외에도 영업권 허가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지역 소상공인 업계 역시 대법원 판결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며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현호 광주지역연합회 준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민주적 상권경쟁에 어울리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하지만 행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친재벌·반민주적 태도를 강화하는 입장으로 돌아설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대기업의 영업 자유보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적극 지지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시 찾아온 이번 기회를 통해 골목상권의 서비스 질 향상과 저렴한 물품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계는 다소 어

쉬운 결정이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규제 ‘대못’을 박으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의무휴업의 효과가 미미한 편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그에 따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대형마트 휴무로 인한 소비와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들의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크다는 점에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전 효과...광주·전남 상장사 순익 340% ‘굉충’

올 9월까지 총매출 51조 1515억원... 11개사 흑자경영

올해 3분기(1~9월)까지 광주·전남지역 코스피(유가증권)·코스닥 상장기업들이 장사를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나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전력의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내놓은 ‘광주전남 지역 12월 결산법인 2015사업연도 3분기 누적 영업실적 현황’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15개사의 3분기 총매출액은 51조 1515억원으로 전년대비 3.6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8조9625억원으로 전년대비 63.78%, 순이익은 11조 954억원으로 전년대비 341.01% 각각 증가했다.

상장사별 매출액은 한전이 44조26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호타이어 2조2561억원, 금호산업 1조1076억원 순이다.

상장사의 이 기간 영업이익은 8조96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조5722억원에 비해 63.78% 늘었고 순이익은 11조95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조8109억원에 비해 무려 341.01%가 증가했다.

특히 한전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8조6679억원, 11조8413억원으로 상장사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상장사의 부채비율은 9월말 현재 163.76%로 지난해 말 대비 32.47%포인트 낮아졌으나 전국평균(124.26%)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상기업 15개사 중 11개사가 순이익 흑자를 달성한 반면 한화화인케미칼, 대우에이텍, 금호타이어, 금호산업 등 4개사는 적자가 계속되거나 적자로 전환됐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9개사의 3분기 총매출액은 3702억원으로 전년대비 11.4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28억원으로 전년대비 105.87%, 순이익은 283억원으로 전년대비 166.74% 각각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전년말대비 0.41%포인트 낮아진 38.30%를 기록, 전국평균(96.5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9개사 중 8개사가 흑자를 낸 반면 1개사는 적자가 지속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소상공인 마케팅 교육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소장 조계현)에서 오는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소상공인재창업패키지 교육 ‘소상공인 홍보마케팅 대행서비스업 과정’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부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교육은 만19세 이상의 소상공인과, 업종전환 희망자, 재창업 희망자, 폐업신고자, 직계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상공인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다양한 전략과 실제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홍보마케팅 대행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체계와 경영비법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기회다.

모집인원은 20명이며, 교육신청 및 문의는 전화(062-515-0300), 홈페이지(www.startbiz.co.kr)를 통해 하면 된다.

경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18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존중과 배려 세정문화 실천운동 선도식’을 갖고 납세자를 위한 배려세정을 다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광주국세청 ‘존중과 배려의 세정문화 실천’ 선포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신수원)은 18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지방청 간부 및 세무서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존중과 배려 세정문화 실천운동’ 워크숍 및 선도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광주지방국세청 전 직원 이 국민에 대한 봉사과 신뢰를 쌓는 일이

공직자의 최고 덕목이라는 인식을 통해 동료 직원과 납세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을 세정 측면에서 실천토록 뜻을 모았다.

신수원 광주청장은 ‘존중과 배려 세정문화 실천운동’을 통해 직원 상호간에 존

경과 배려의 마음이 납세자에게까지 전해지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존경과 배려세정을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88.91 (+26.03)
- ▼ 금리 (국고채 3년) 1.74% (-0.02)
- ▲ 코스닥 680.57 (+9.90)
- ▼ 환율 (USD) 1161.70원 (-10.50)

올 4인 가족 김장비용 21만원

aT, 새우젓 전년비 35% 상승...배추·고춧가루 하락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18일 기준 김장재료 구입비용은 2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비용은 4인가족, 배추 20포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평년보다 2만원 가량 저렴하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 41개소(전통시장 16개소, 대형유통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18만7170원, 대형마트는 21만4274원으로 평균 21만 171원으로 집계됐다.

김장 주재료인 배추는 대형유통업체의 가격 할인행사가 본격화되면서 20포기 기준 4만원으로 지난해(4만3000원) 대비 약 6.1% 하락했다. 고춧가루 또한 평년대비 약 10% 하락했다.

하지만 깻잎과 생강은 평년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특히 새우젓은 강화도 연안의 첫새우 여획량이 급감한 결과 평년 대비 약 35%(전년대비 약 48%)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값이 하락하면서 김치지수 또한 김치지수보다 훨씬 낮다. 김치지수는 4인 가족이 김치를 담그기 위해 재료(13개 품목)를 전통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에서 구입하는 비용을 지수화한 것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년가격(23만 4636원)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18일 기준 김치지수는 89.6으로 기준지수보다 10.4포인트 하락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만원 가량 저렴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효성, 전북 특화산업 육성 협약

탄소소재·농생명 분야 등 수출 유망 中企 공동발굴

효성은 전북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수출입은행과 ‘전북 특화산업 육성·지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지역 특화산업인 탄소소재, 농생명·식품, 전통문화 등 3개 분야에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공동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북혁신센터는 지역 내 특화산업 유망 기업을 발굴 및 추천하고 효성은 지원대상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

술, 연구개발, 해외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우대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전북도는 지원기관들을 조율하면서 수출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상은 효성 부회장은 “전북도를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농생명, 전통문화 등의 특화산업도 적극 지원해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겨울용 타이어 고객에 사은품

금호타이어는 내달 15일까지 타이어 프로 등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일부매장 제외)에서 겨울용 타이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사은 이벤트를 실시한다. 겨울용 타이어는 최근 잦은 폭설과 한파로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이벤트에서 금호타이어의 윈터 크래프트 KW27를 비롯한 겨울용 승용타이어 및 SUV(RV)타이어를 2개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보습

로선 세트를 증정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겨울철 안전운행을 위해 겨울용 타이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계절용 타이어는 영상 7도 이하에서 고무가 경직되어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타이어 및 차량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따라서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함께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경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

월 수익 (1,02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 1억5천, 용 6억)

매가 17억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상무지구 5층, 90평>

→ 5층전용, 90평

즉시입주가 / 시설완비

(주차2대 무료)

(시비 약간 있음)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우리은행 뒷)

→ 보 2천, 월 130만

신축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신축 상가원룸 (4면 대리석시공)

1층 (상가,1칸)
2층~3층 (룸10개)
4층 (주택)

월 수익 (450만)
(보 4,000만, 용 1억)

→ 매가 6억9천

법률 경매

1.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토 500평, 건 904평)
→ (첨단지구 삼성전자 앞)
(1층상가, 120평-2~7층 룸 60개-8층, 주택겸사무실)
☆ 분할등기가능 (향후 60억가치있음)
☆ 임대수익 (보 3억, 월세 3천만)
(12월 1일) 경매일

감정가 35억4천 → **24억8천**

2. 서구 농성동 (토 86평, 건 263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 지하 (국악연습실) 1층(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
☆ 농성역 부근, 서구 K지사 부근

5. 광산구 남산동 (토 258평, 건 150평)
감정가 4억8천 → **최저가 2억1천**
→ 1층(제조업,냉동창고) 2층 (사무실)

경매 투자

1. 원금 보장(연수익 20%)
예) 1억투자서 연 이자 2천만원

2. 경매 전문 낙찰부터 개발까지 책임중개

3. 단골/공동 투자 가능

※ 외 다수 물건있음 (5천만~10억) (10억~100억)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 여직원)
경매, 부동산 실무실론 경매컨설팅 교육

경매 물건 추천

1.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 (토 44평, 건166평)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2억5천**

2. 북구 신안동 (근린주택) (토53평, 건 140평)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3.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90, 건364평)
감정가 12억2천 → **최저가 8억5천6백**

수익성 상가 (근린시설,통건물)

- 수원지구 우미린A.P.T 앞 4층건물 (매지 144평, 건 260평) → 매가 17억
- 상무지구 6층건물 (우리은행) 금융가렛 (월수익 1,000만 - 보2억,용6억) → 매가 20억
- 상무지구 상가 5층건물 (롯데마트앞) (매지 122평, 건423평) → 매가 28억
- 광산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8백, 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5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보 1천, 월60만) (용 5천) → 매가 1억1천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 상무지구 정면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보1천, 월60만) 임대완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미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보5백, 월 45만 - 임대완료) → 매가 8천5백만
- 상무지구 수미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옆 (용4천)보5백, 월 42만 → 매가 7천5백
- 상무지구 수미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옆 (보2천)보3백, 월33만 → 매가 4천5백만
- 나주 삼영동 2층 상가 매매 (나주혁신도시10분,나주시청2분) (보2천, 월200만) → 매가 3억

신축원룸 매매 (상가겸용)

-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12개-투룸12개, 원룸6개) (보4천5백, 월720만) → 매가 7억8천만
- 용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룸-2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
- 광양 광영동 상가I.A.P.T 12층(15평) 상가및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 월25만) → 매가 3천8백만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전역변출구 3분 (용2천)보3백, 월32만) → 매가 3천6백만

010-7384-7800

010-6670-9800

062-382-5500, 010-6832-9700